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점검...7곳 적발

- 대량 조리 음식·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등 예방 교육·홍보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 취약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및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중독예방과	책임자	과 장	이 성 (043-719-2101)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3-719-2105)



연번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유형	적발기관
1	다래한식뷔페	일반음식점	충북 청주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재사용 목적 잔식 보관)	충북 괴산군
2	더세인트 웨딩	일반음식점	서울 구로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서울 구로구
3	(주)본정원 하안유산부인과지점	위탁급식영업	충북 청주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위생불량)	충북 청주시
4	주식회사 이천탑클래스학원	집단급식소	경기 이천시	보존식 미보관	경기 이천시
5	해성마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제주 서귀포시	건강진단 미 실시(2차)	제주 서귀포시
6	행복맛집	일반음식점	경기 시흥시	건강진단 미 실시	경기 시흥시
7	화담한국에이버리	위탁급식영업	충북 충주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충북 충주시, 제천시